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의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성경탐구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생활 400년 미스터리

최종편

애굽생활 400년 가운데 전반기 약 200년(BC 1876~1674년) 동안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였다. 애굽의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였다. 이스라엘의 유다지파는 고센의 아비리스 성읍을 기점으로 삼고 번성하는 가운데 가나안의 에돔족속과 교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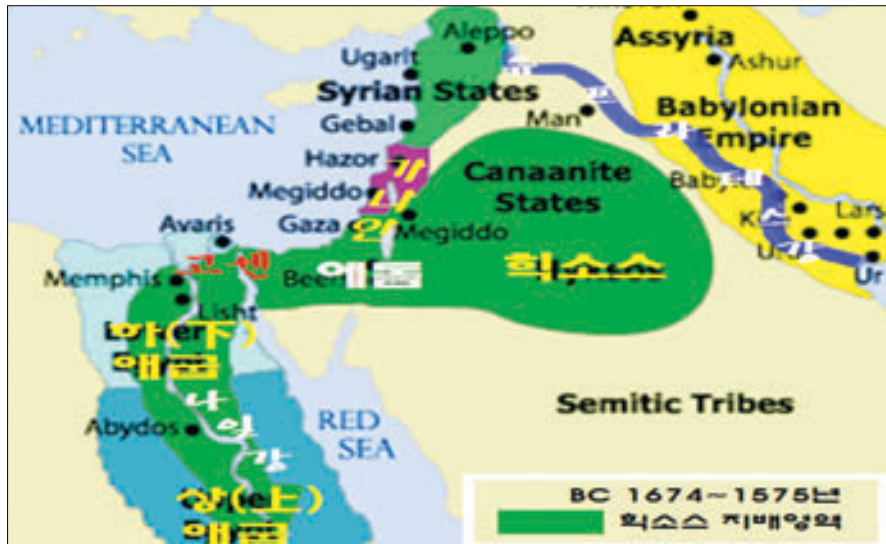
에서가 세운 에돔왕국의 특성

에돔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다. 에서는 비록 동생 야곱한테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축적된 재산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재산 일부를 차지하였다(창세기 33장 9~11절). 게다가 에서는 헷 족속의 딸 유딕과 이스라엘의 딸 마할랏 그리고 히위 족속의 딸 오홀리바를 취하였다. 헷 족속은 곧 세계 최초로 철병기를 사용한 히타이트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자식으로 아라비아 광야를 지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의 딸 오홀리바마는 에돔의 원주민으로서 세일에 거주하던 호리 사람의 자손이었다(창세기 36장 20~25절).

이렇게 에서와 혈연관계를 맺은 각 부족은 에돔이라는 기치 아래 마치 오늘날의 연방제 국가처럼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에돔을 대표하는 왕(王)도 세습제가 아니라 각 부족의 족장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애굽의 14왕조를 무너뜨린 고센스 왕조를 세운 주체세력 가운데 호리족의 사람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계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희소스인들의 특성을 보아, 그들은 그 당시 여러 족속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에돔왕국에 속한 사람들과 단절할 수 있었다(희소스 영토 지도 참조).

고센의 유다지파와 에돔왕국의 희소스인들과 연맹

요셉을 죽으라고 꾸밈이에 던져 넣었던 적이 있던 레아의 자식을 가운데 특히 유다는 '총리대신 요셉이 당장 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고 생각하였다(창세기 50장 15절). 그리하여 요셉의 앙갚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유다는 부친 야곱이 계신 리만셋과 가까운 아비리스에 거주하였다. 또한 아비리스는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도주하기에 적합한 장소였



이집트 12왕조(요셉의 사역)와 희소스 15왕조의 스키타프 인장

다. 만일을 대비하여 유다는 가나안에서 에돔왕국을 건설한 큰아버지 에서를 자주 찾아뵙고 큰아버지의 많은 손자들 중에 몇몇을 고센의 유다집안의 데릴사위로 들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그의 조상은 에서의 손자 그나스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유다 가계 쪽에서 에서(에돔) 가계와의 혼인에 의한 혈연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애썼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장자 축복을 받은 단은 그의 아들이 큰아버지 에서의 핏줄 가운데, 에서의 아내 즉 이스라엘의 딸 마할랏이 낳은 르우엘의 손녀와 혼인관계를 맺게 했음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옮겨지는 장자축복의 계승은 노아의 아들 셈의 순수 혈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의 여러 아내들 중에 셈의 직계자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마할랏은 아브라함의 손녀로서 장자축복을 계승하는 단지파와 혈연관계를 맺었던 것이다(창세기 28장 9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훔의 손녀 리브가를 아내로 삼은 것은, 나훔이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으로서 셈의 순수혈통을 중요시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데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리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도 셈의 단 일민족으로서의 순수혈통이 얼마나 중

요한적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선민(選民)을 통해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야곱 이래 6천년간 사망관계를 이길 수 있는 피(血)의 권세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애굽생활 중기 약 100년(BC 1674~1575년)

총리대신 요셉은 이집트 12왕조 아메넴헤트 3세 때 기원전 1805년에 110세의 나이로 임종했다. 요셉 사후 이집트 12왕조의 절대왕권은 급속히 약화되어 아메넴헤트 3세를 계승한 아메넴헤트 4세(BC 1797 ~ 1790년)의 재위기간이 7년밖에 되지 못하였고 그 뒤를 이은 소백네페루 여왕(BC 1790 ~ 1785년)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채 안되어 12왕조는 망하였다. 이후 기원전 1785년에서 기원전 1674년까지 110년 동안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두 번이나 교체되었는데, 첫 번째로 13왕조에서는 왕이 30명이었으며 두 번째로 14왕조에서는 왕이 70명 이상이었다.

가나안에서 고센을 통과한 상인들 즉 희소스인들이 눈 화장품을 팔기 위해 애굽의 멤피스 도성 또는 테베 도성을 왕래하였다. 그들은 애굽 왕조의 무질서와 치안 부재로 안전한 상거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장

한 전차를 앞세워 애굽을 치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하나의 걸림돌로 고센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애굽정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애굽의 고센에 정착한지 2백년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하였다.

그래서 희소스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아비리스 성읍에 거주하는 유다지파와 동맹을 맺고 합세하여 애굽의 14왕조를 무너뜨렸다. 희소스 군대에 유다지파가 합류할 때 르우벤지파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는 중립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에돔왕국의 희소스인들과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애굽의 수도를 아비리스로 정하고 애굽을 약 100년(BC 1674~1575년)간 통치하였는데, 바로 이집트 15왕조와 이집트 16왕조에 해당된다. 이집트 15왕조의 초대왕은 에돔왕국에 속한 희소스인 세시(Sheshi)가 되었으며 그 다음 제2대왕은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인 야쿠허르(Yakubher)가 되었다.

희소스 왕조로 알려진 15왕조와 16왕조에서 왕이 사용하는 인장은 이집트 12왕조 때 총리대신 요셉의 손가락에 끼여 있던 스키타프 인장과 똑같은 나선형의 아리랑 문양을 새겼다(사진 참조). 이는 희소스의 주류가 가나안 사람으로 서부 셈어를 사용했던 야곱의 아들 요셉한테서 혈통적으로 동질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애굽생활 후기 약 100년(BC 1575~1446년)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애굽생활 가운데 마지막으로 『후기 약 100년(BC 1575~1446년)』은 이민족 희소스 왕조의 지배에서 해방되기 위해 상(上)애굽의 테베에서 이집트 17왕조가 일어났으며 테베의 아호모세가 기원전 1575년에 희소스 정권을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의 초대왕 아호모세 1세로 등극하였으며, 이후 백 년 동안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들과 가와를 굶게 하는 등 종살이시키던 시기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압제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때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던 기원전 1446년이였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3)
“매일 예배를 보아야”

이긴자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귀 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무엇이 좋다고 예배 보는 것을 게을리 하는가? 마귀 새끼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긴자와 더불어 예배 보는 1시간이 우주덩이만한 금덩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긴자한테서 생명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긴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좌정하셨으므로 이 사람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긴자의 영은 일

초 일초 고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초 전 영과 일초 후의 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이므로 매일 와서 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된다. 바라보는 순간, 마귀를 박살시킨다. 매일매일 오는 자는 인간의 탈을 벗고 마귀 속에서 석방되어 결국 인간 본연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몸이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환정보뇌(還精補腦)

우리 승리제단 신도들은 영생을 바라라고 추구한다. 삶의 의지는 분성이다. 그래서 영생은 육신이 아니라 인간의 분성이다.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냥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수련해야 한다. 죽으면 말짱 황이다. 그래서 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살아야 한다.

병은 피가 썩어서 온다. 피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썩는다. 요즘은 독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다. 농약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말미암아 독이 안 든 음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는 욕심을 부릴 때도 폭폭 썩는다. 욕심을 안 부리고 살기가 또한 무척 어려운 세상이다. 막방 프로가 판을 치니 여기저기서 식욕을 돋우고, 중년 남녀들의 탈선을 다루는 드라마가 일상이 되어 섹스지향적 동물성 사회가 되어버렸다.

환정보뇌(還精補腦)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精)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돌려 기운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정(精)이 자신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환정보뇌의 방법으로는 요가 수행 중 거꾸로 서기 자세를 한다거나 방중술(房中術)에 접이불루(接而不漏)하러거나 등등이 있다. 속인들은 방중술에 현혹되어 접이불루를 추구하나 그것은 마귀의 화살이다.

환정보뇌를 하려면 제일 먼저 음란을 이겨야 한다. 마음으로도 음란을 이겨 설사 꿈속에서라도 정을 밖으로 쏟아낼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 정말 피나는 수행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승리제단에 와서 감로를 받으면 쉽게 이 경지에 올라가게 된다. 구세주가 부어주시는 감로의 공로 덕분이다.

그러므로 승리제단에 와서 감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행(苦海)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본지 지만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